

서울시 자살예방지킴이 훈련 효과성 검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ffects of the Gatekeeper Training in Seoul

이구상¹, 고진선¹, 김진경¹, 윤신정¹, 이희진, 이명수²

GS Lee MSW, JS Ko MSW, JK Kim MSW, SJ Yoon MSW, HJ Lee SW, MS Lee MD, MPH

초 록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서울시에서 개발한 자살예방지킴이(Gatekeeper) 훈련이 자살위험 대상자를 조기발견하고 연계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살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 **연구방법** : 2012년 서울시자살예방센터를 중심으로 개발된 서울시 자살예방지킴이 훈련 양성 과정에서 자살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 대한 인식변화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2014년 1월부터 5월까지 서울시자살예방센터와 25개 자치구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통해 '자살예방지킴이 훈련 양성 과정'을 이수한 자 4,090명을 대상으로 3시간 양성과정을 진행했으며 교육 전·후 동일한 설문을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사전사후 변화를 검정하기 위해 SPSS 18.0을 통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 **연구결과** : 자살예방지킴이 훈련을 실시하기 전과 실시한 후 '자살에 대한 오해'를 통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결론** : 서울시에서 개발한 자살예방지킴이 훈련이 자살예방활동에 있어서 중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자살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감소시키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용어** : 자살, 자살예방지킴이, 자살예방지킴이 훈련

Abstract

- **Objective** :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gatekeeper training on the misconception and prejudice about suicide which play a decisive role to detect suicidal person early and establish liaison.
- **Method** : From January to May in 2014, the study performs the 3 hour training for 4,090 graduates of the 'gatekeeper training program' in the Seoul Suicide Prevention Center and 25 local mental health centers to verify the change in misconception and prejudice about suicide during the gatekeeper training in Seoul mainly developed by the Seoul Suicide Prevention Center in 2012. Based on this, the paired samples t-test is performed through SPSS 18.0 to test the changes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gatekeeper training.
- **Result** : As a result of the paired samples t-test for 'the misconception about suicide' before and after the gatekeeper training,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 **Conclusion** : The gatekeeper training developed by Seoul City lead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decrease of misconception and prejudice for suicide, the important factor for suicide prevention.
- **Keyword** : suicide, gatekeeper, gatekeeper training

1 _ 서울시자살예방센터

2 _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I. 서론

OECD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4년 이후로 OECD회원국 중 줄곧 자살사망률 1위라는 오명과 함께 사회적으로도 자살이 큰 이슈가 되어 왔다. 특히 최근의 자료에서는 2013년 기준으로 OECD 평균 자살사망률 12.1명보다 17.0명 높은 29.1명에 달하고 있으며, 2위 국가와도 10명 이상의 차이를 보여 타 국가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자살사망률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OECD, 2014).

또한 2014년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사망원인통계'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자살로 사망한 사람은 14,427 명으로 전년도보다 267명 증가한 수치를 보였으며, 더불어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률 또한 28.5명으로 2012년에 처음으로 감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14). 일반적으로 자살사망률 지표를 통하여 정신보건 서비스 접근성 및 서비스로 인한 낙인을 감소시키기 위한 인식을 높이는 등 해당 국가의 정신보건 체계의 취약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OECD, 2014).

이에 우리나라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자살사망률에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보건복지부가 2005년 자살예방 5개년 중장대책을 최초로 수립하여 국가 차원에서 자살을 감소 위한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2011년에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인프라 조성과 다양한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한 제도적 마련에 힘써왔다.

서울시 또한 2005년 광역형 정신보건센터를 전국 최초로 설치하여 365일 24시간 위기관리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2009년에는 위기관리팀을 서울시자살예방센터로 승격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대응 체계를 견고히 하였다(서울시자살예방센터, 2014).

특히 2012년에는 광역단위의 자살예방사업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지역사회기반 예방사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전문적 자살예방 서비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5개 자치구(강서구, 관악구, 노원구, 성북구, 은평구)를 중심으로 자살예방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서울시자살예방센터, 2014). 대중매체, 사후관리, 네트워크 등 다각적인 접근을 통하여 통합적 자살예방 전략을 수립하였으나,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근거중심의 전략이 무엇보다 절실했다.

자살예방지킴이(Gatekeeper) 훈련은 자살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이 보통은 스스로 애써 도움을 구하려 하지 않지만, 이들을 알아차릴 수 있는 위험요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모델링되었다(Gould MS and Kramer RA, 2001). 자살예방지킴이(Gatekeeper)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게 자살에 대한 지식뿐만 아

니라, 행동의 변화와 대처기술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은 이미 국내외 다수의 연구를 통해 검증되었다. 교내 직원 및 또래 도우미나 군부대와 같이 특정 집단에서 자살예방지킴이(Gatekeeper) 훈련을 활용하여 자살을 감소에 영향이 있었다는 연구결과 또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즉, 훈련을 통한 지식 향상과 인식의 변화가 실제 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나아가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자살예방 사업 및 프로그램이 자살예방지킴이(Gatekeeper) 훈련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는 자살예방지킴이(Gatekeeper) 훈련 과정을 개발하여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에 배포함으로써 유관기관 실무자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폭넓은 훈련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였으며, 더불어 자살예방지킴이(Gatekeeper) 강사를 양성하여 모든 자치구에서 일관적이고 공통된 교육이 가능토록 교육체계를 일원화하였다. 결국 자살예방지킴이(Gatekeeper) 훈련 과정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살의 시도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연계하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처럼 기존에 보고된 효과성에 근거하여 서울시자살예방센터를 중심으로 각 자치구에서 자살예방지킴이(Gatekeeper) 훈련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교육 체계 구축 이후 실제 효과성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서 개발한 자살예방지킴이(Gatekeeper) 훈련이 자살위험 대상자를 조기발견하고 연계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살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자살률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살률을 감소시키고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 여러 나라에서 다차원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으며, 효과성 검증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 중, 자살예방을 위해 마련된 전략 가운데 효과가 검증된 것을 Mann, J(JAMA, 2005)의 연구결과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

이 중, 자살률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라 검증된 방법은 '1차 진료 의사' 및 '자살예방지킴이'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다. '1차 진료 의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의 경우 개입했던 여러 나라들의 연구사례를 통해 자살률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효과성 또한 각 나라별로 다소 상이한 결과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자살예방지킴이(Gatekeeper)를 대상으로 한 교육의 경우, 자살률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검증되었다.

★ 표 1. 사후개입에 따른 자살률 감소

개입방법	자살감소율(%)
교육	
대중교육 및 캠페인	효과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음
1차 진료 의사	22~73
게이트키퍼(자살예방지킴이)	40
항우울제 치료 확대	3.2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효과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음
자살 위험 요인 제거	
총	1.5~9.5
가스	19~33
미디어 관리	효과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음

2. 자살예방지킴이(Gatekeeper) 훈련이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

1) 국내

자살예방지킴이(Gatekeeper) 훈련은 대부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 중에는 자살예방지킴이(Gatekeeper)보다는 생명존중을 주제로 한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조사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김경희, 2008; 연현진, 2010; 김가령 외, 2013). 자살예방지킴이(Gatekeeper)와 관련된 연구로 손정남(2011)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또래 자살예방 지킴이(Gatekeeper)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살예방지킴이(Gatekeeper)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문제해결 자신감, 우울 및 자살생각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로 참여자들의 문제해결 자신감은 유의하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의 요인에서는 변화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신은정 외(2013)의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또래 지킴이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자존감과 친구관계, 자살위험성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 결과,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자존감과 친구관계를 높임으로써 자살위험성을 낮추는데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자살예방지킴이(Gatekeeper) 훈련이 자살률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2) 국외

국내와 비교할 때 외국에서는 보다 자살예방지킴이(Gatekeeper) 훈련의 실시 및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 군부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자살예방지킴이(Gatekeeper) 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학교를 기반으로 한 자살예방지킴이(Gatekeeper) 훈련과 관련된 여러 연구에서는 학교 직원 혹은 또래 도우미(peer helper)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였고, 훈련 후 자살에 대한 태도와 지식, 신념, 자살 고위험군 학생들에 대한 개입

기술의 변화 정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각각의 연구마다 그 정도는 다르지만 지식과 신념, 개입기술 각각의 요소가 향상되었음이 확인되었고, 이는 궁극적으로 자살률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하였다(Carol Stuart et al, 2003; Tanya L. Tompkins et al, 2009; Michael Isaac et al, 2009). 군부대에서의 자살예방지킴이(Gatekeeper) 훈련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미국 공군 부대에서의 프로그램을 주목할 수 있다. 미국 공군 부대는 11개의 자살 예방 전략을 수립하였고, 전략의 일환으로 자살예방지킴이(Gatekeeper)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 훈련은 LINK 프로그램을 통해 문제의 발견 및 확인, 위험수준 파악, 의뢰 및 연계 등의 과정과 자살 위험요소, 개입기술, 연계 등의 과정을 포함하였으며, 이를 통해 부대 내의 자살관련 위험요소가 33% 감소한 것으로 보고하였다(Knox KL, Litts DA, Talcott GW, et al, 2003). 이 외에 병원, 상담소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에서 자살예방지킴이(Gatekeeper) 훈련이 실시되고 있고, 대부분의 연구에서 자살예방지킴이(Gatekeeper) 훈련을 지역사회 내 자살률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III. 연구방법

2012년 서울시자살예방센터를 중심으로 개발된 서울시 자살예방지킴이(Gatekeeper) 훈련 과정에서 자살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 대한 인식변화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2014년 1월부터 5월까지 서울시자살예방센터와 25개 자치구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통해 '자살예방지킴이(Gatekeeper) 훈련 양성 과정'을 이수한 자 4,090명을 대상으로 교육 전과 교육 후 동일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설문문의 구성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7문항과 '주변인 자살 경험 여부'를 묻는 자살 관련 질문 1문항, 그리고 자살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검증하기 위해 이승연이 2007년 개발한 '자살에 대한 오해' 10문항 설문지를 사전에 실시하고 3시간 양성과정을 진행한 후 동일한 설문지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사전사후 변화를 검증하기 위해 SPSS 18.0을 통해 빈도분석과 사전사후비교를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이승연(2007)의 연구에서의 cronbach α 값은 .67이었으나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 값의 경우, 사전검사는 .82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사는 .93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로 자살예방지킴이(Gatekeeper) 훈련을 통해 자살률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이나, 현재 수준에서는 의뢰 활성화를 위한 자살에 대한 오해를 개선시키는가에 대해 제한적으로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로는 강사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강사의 수준에 따라 전달에 대한 내용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훈련에 있어서의 교육장소, 시간, 인원수, 훈련 시간(본 훈련은 3시간 이상 진행이 원칙임) 준수 등 환경적 요인 등을 적절히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 4,090명 중 '여성'이 2,205명(53.9%), '남성'이 1,885명(46.1%)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평균연령=41.7세(표준편차=18.54)) '30·40대'가 1,513명(37.0%), '50대 이상'이 1,421(34.7%), '20대 이하'가 580명(23.5%), 무응답이 4.8%로 나타났다. 학력 구분에 있어서는 대졸이 2,212(54.1%)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고졸 이하가 1,064(26.0%)이었고, 대학원졸 이상이 234(5.7%)명으로 나타났다.

자살예방 관련 교육 경험 여부에서는 809명(19.8%)이 '자살예방 관련 교육 이수 경험 있다'고 응답하였고, 주변인의 자살사망에 대한 경험유무에 대해서는 573명(14.1%)이 '가까운 사람 중에 자살한 사람이 있다'고 응답하여, 7명중 약 1명은 지인의 자살로 인한 상실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 표 2. 자살예방지킴이 훈련 이수자 일반적 특성

(N=4,090명)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성	1,885	46.1	
	여성	2,205	53.9	
연령대	20대 이하	958	23.5	
	30대 · 40대	1,513	37.0	
	50대 이상	1,421	34.7	
	무응답	198	4.8	
학력 구분	고졸이하	1,064	26.0	
	대졸	2,212	54.1	
	대학원졸 이상	234	5.7	
	무응답	580	14.2	
훈련 우선 순위 ¹⁾	의무 대상	1순위	1,465	35.8
		2순위	1,577	38.6
	선택 대상	1,011	24.7	
	무응답	37	0.9	
교육 경험	있음	809	19.8	
	없음	2,780	68.0	
	무응답	501	12.2	
지인 자살	있음	573	14.1	
	없음	3,023	63.3	
	무응답	432	10.6	

1) 2014년 서울시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자원사업 매뉴얼¹⁾에서 자살예방지킴이교육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

구분	교육대상
의무대상	1순위 방문보건사업 인력, 사회복지직 공무원, 지구대 및 파출소 경찰
	2순위 방문보건사업 인력 외 보건소(진료의사 포함) 종사자, 노인복지관 및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노인돌봄서비스 인력, 소방구급대
선택대상	통장 및 반장, 약사회, 의사회, 일반시민 및 단체 등

2. 자살예방지킴이(Gatekeeper) 훈련 이수자의 사전·사후 비교

자살예방지킴이(Gatekeeper) 훈련을 실시하기 전과 실시한 후 '자살에 대한 오해'를 통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01$)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살에 대한 편견과 오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 하며, 자살에 대한 오해를 감소시키고 적절한 대처 인식을 향상시킴으로써 의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표 3).

★ 표 3. 자살예방지킴이 훈련 이수자 사전·사후 비교

구분	사전검사		사후검사		t값	유의확률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자살에 대한 오해	3.17	.73	3.26	1.11	-5.73	.000

3.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자살예방 지킴이 이수자 사전·사후 검사 비교

1) 성별에 따른 이수자 사전·사후 비교

성별에 따른 자살예방지킴이(Gatekeeper) 훈련 실시 전후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여성: $p<0.001$, 남성: $p<0.05$)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표 4), 자살예방지킴이(Gatekeeper) 훈련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자살에 대한 오해 감소에 효과가 있었다.

★ 표 4. 성별에 따른 이수자 사전·사후 비교

구분		사전검사		사후검사		t값	유의확률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성	3.05	.80	3.10	1.16	-1.91	.047
	여성	3.27	.66	3.40	1.05	-6.12	.000

2) 연령대에 따른 사전·사후 비교

연령대에 따른 자살예방지킴이(Gatekeeper) 훈련 실시 전후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20대 이하와 30·40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01$)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50대 이상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자살예방지킴이(Gatekeeper) 훈련이 젊은 연령층에서는 자살에

★ 표 5. 연령대에 따른 사전·사후 비교

구분		사전검사		사후검사		t값	유의확률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연령대	20대 이하	3.32	.65	3.44	1.01	-3.99	.000
	30·40대	3.27	.68	3.47	1.00	-8.68	.000
	50대 이상	3.03	.68	2.97	1.14	1.75	.080

대한 오해를 감소시키는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오해를 감소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학력구분에 따른 사전·사후 비교

학력구분에 따른 자살예방지킴이(Gatekeeper) 훈련 실시 전후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대졸과 대학원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01$)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졸이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표 6), 자살예방지킴이(Gatekeeper) 훈련이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 층에서는 자살에 대한 오해를 감소시키는 반면, 고졸이하의 학력 층에서는 오해를 감소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자살예방지킴이(Gatekeeper) 훈련은 일정수준의 지식 및 학력수준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표 6. 학력구분에 따른 사전·사후 비교

구분		사전검사		사후검사		t값	유의확률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학력 구분	고졸이하	2.95	.68	2.90	1.16	1.46	.144
	대졸	3.29	.64	3.46	.96	-9.06	.000
	대학원졸이상	3.46	.69	3.76	.83	-7.40	.000

4) 훈련우선순위 구분에 따른 사전·사후 비교

훈련우선순위 구분에 따른 자살예방지킴이(Gatekeeper) 훈련 실시 전후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1순위와 선택 대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01$)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순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표 7), 1순위와 선택대상의 경우 자살에 대한 오해가 감소한 반면, 2순위는 자살에 대한 오해가 감소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 표 7. 훈련우선순위에 따른 사전·사후 비교

구분			사전검사		사후검사		t값	유의확률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훈련	의무	1순위	3.09	.74	3.23	1.09	-5.36	.000
우선	대상	2순위	3.21	.75	3.19	1.27	.78	.44
순위	선택대상		3.21	.69	3.42	.82	-9.35	.000

5) 자살예방교육경험에 따른 사전·사후 비교

자살예방교육경험여부에 따른 자살예방지킴이 훈련(Gatekeeper) 실시 전후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교육받은 적 없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01$)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살예방교육을 받은 적 있음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표 8), 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는 자살에 대한 오해가 감소했으나, 교육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오해의 개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8. 자살예방교육경험에 따른 사전·사후 비교

구분		사전검사		사후검사		t값	유의확률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교육	있음	3.28	.74	3.34	1.12	-1.75	.080
경험	없음	3.17	.65	3.27	1.06	-5.77	.000

6) 지인자살 경험 여부에 따른 사전·사후 비교

지인자살 경험 여부에 따른 자살예방지킴이(Gatekeeper) 훈련 실시 전후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지인자살 있음($p<0.001$)과 지인자살 없음($p<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표 9), 자살예방지킴이(Gatekeeper) 훈련이 지인의 자살경험 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두에게서 자살에 대한 오해를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표 9. 지인자살 경험 여부에 따른 사전·사후 비교

구분		사전검사		사후검사		t값	유의확률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지인	있음	3.15	.77	3.23	1.15	-4.46	.000
자살	없음	3.21	.65	3.30	1.03	-2.93	.004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자살예방지킴이(Gatekeeper) 훈련이 자살에 대한 오해와 편견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 목적 하에 2014년 1월부터 5월까지 서울시자살예방센터와 25개 자치구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통해 자살예방지킴이(Gatekeeper) 훈련을 이수한 4,09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살예방지킴이(Gatekeeper) 훈련은 자살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감소시킴으로서 적절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오해와 편견의 감소와 적절한 대처 능력의 향상은 자살의 위험징후를 나타내는 자살 고위험군들에게 다가가서 자살의 위험성의 징후를 찾아내고 발견하여 의뢰하는 자살예방지킴이(Gatekeeper)의 역할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 판단된다.

둘째, 자살예방지킴이(Gatekeeper) 훈련에 대한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에 대한 비교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자살에 대한 오해를 감소시켰으며 50대 이하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은 자살에 대한 오해를 감소시키지만 50대 이상의 경우 자살에 대한 오해를 감소시키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되었다. 또한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 수준을 가진 자살예방지킴이(Gatekeeper)의 경우에는 자살에 대한 오해가 감소한 반면, 고졸이하의 자살예방 지킴이는 자살에 대한

오해가 감소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성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기에 누구에게든 훈련을 실시하면 좋지만 50대 이하의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살예방지킴이(Gatekeeper)에게 자살예방지킴이(Gatekeeper) 훈련을 시키는 것이 보다 효과적으로 자살에 대한 오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는 서울시에서 자살예방지킴이(Gatekeeper)에 대한 우선 순위 대상자 선정 시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교육 대상 선정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2014년 서울시에서 제시한 자살예방지킴이(Gatekeeper) 훈련의 우선순위 대상인 1순위 대상(방문보건, 사회복지직, 경찰등)과 기타 대상(통장, 반장, 약사회, 의사회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2순위 대상자(복지관 종사자, 노인돌봄서비스인력등)에게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순위 대상이 되는 대부분 기관이 자살의 위험성이 높거나 상황적 빈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1차적으로 찾아오거나 그들을 발굴하는 역할이 주된 기관이 아니며, 서비스 신청을 하여 기관의 이용을 신청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이 주된 곳임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자살에 대한 오해와 편견의 변화가 자살 고위험군의 의뢰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는 과제와 함께 자살예방지킴이(Gatekeeper) 훈련 우선순위 대상의 선정에 중요한 고민거리를 안겨주었다.

넷째, 자살예방지킴이(Gatekeeper) 훈련은 주변인의 자살 경험 여부와 상관없이 자살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자살예방지킴이(Gatekeeper) 훈련을 통한 오해와 편견의 변화는 지인의 자살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다 적용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향후 자살예방지킴이(Gatekeeper) 훈련 시 주변인의 자살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자살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감소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자살유족을 위한 애도상담 및 자조모임의 정보를 제공하여 유족들의 심리 안정 서비스의 연결고리망 역할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자살예방지킴이(Gatekeeper)의 역할에 포함하도록 해야 하는 과제를 남겨 주었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지금까지 다양한 자살예방교육이나 훈련이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근거를 기반으로 한 방향성이 제시된 서울시의 자살예방지킴이(Gatekeeper) 훈련은 자살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강사의 자격 조건 강화와 체계적인 강사양성과정을 통해 다양한 강사에 의한 훈련과정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강사관리방안에 대한 고민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의 효과성 검증의 방향성이 자살예방지킴이(Gatekeeper) 훈련 이후 자살에 대한 오해와 편견 감소에 한정

되어있는데, 향후에는 자살예방지킴이(Gatekeeper) 훈련 이후 행동의 변화 및 동기부여수준 등의 확인이 필요하며, 실제적으로 의뢰가 되었는가와 자살예방지킴이(Gatekeeper) 교육활성화가 자살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 이후의 자살예방지킴이(Gatekeeper)들에 대한 다양한 관리 활동들과 준사례관리자의 역할 수행이 자살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해 내고 의뢰하는데 영향을 주는가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VI. 참고문헌

- 김가령, 전영주(2013). 생명존중교육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살태도 및 학교폭력 역할유형 인지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학연구. 20(5):49-75.
- 김경희(2008). 자살위험중학생을 위한 생명존중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자아존중감, 자살위험성, 생활스트레스대처방식,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울시자살예방센터(2014). 2014년 서울시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 지원사업 매뉴얼. 서울특별시.
- 손정남(2011). 중학생의 자살예방을 위한 도래 자살예방 지킴이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20(1). 111-119.
- 신은정, 김희숙(2013). 도래지킴이훈련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자존감, 친구관계 및 자살위험성에 미치는 효과. 정신간호학회지. 22(3):241-251.
- 연현진(2010). 청소년 자살예방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6:265-293.
- 이승연(2007). 청소년 자살에 대한 고등학교 교사의 지식과 오해. 한국심리학회지. 13(1):97-117.
- 통계청(2014). 2013 사망원인통계.
- Carol Stuart, Judith Kelly Waalen, PhD, Echo Haelstromm(2003). Many Helping hearts: An Evaluation of Peer Gatekeeper Training Suicide Risk Assessment. Death Studies. 27:321-333.
- Gould MS and Kramer RA(2001). Youth suicide prevention. Suicide Life Threat Behav. 31:6-31.
- Kerry L Knox, David A Litts, G Wayne Talcott, Jill Catalano Feig, Eric D Caine(2003). Risk of suicide and related adverse outcomes after exposure to a suicide prevention programme in the US Air Force. BMJ. 327:1-5.
- Michael Isaac, Brenda Elias, Laurence Y. Katz, Shay-Lee Belik, Frank P. Deane(2009). Gatekeeper training as a preventative intervention for suicide: A systematic review. Canadian Journal of

- Psychiatry—Revue Canadienne de Psychiatrie.
54(4):260–268.
- OECD(2014). Making Mental Health Count.
- OECD(2014). OECD Health Data 2014.
- Tanya L. Tompkins, Jody Witt, Nadia Abraibesh(2009).
Does a Gatekeeper Suicide Prevention Program
Work in a School Setting? Evaluating Training
Outcome and Moderators of Effectivenes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40(5):
506–515.